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오늘 저녁 찬양으로 영광 돌려-

성탄절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로 모든 인류가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하여야 할 날이다.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가브리엘 찬양대(찬양대장: 박두호 장로, 지휘: 허희철 집사)가 준비한 조셉 마틴의 칸타타 '새벽 별' 10곡으로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드린다.

또 24일(화) 저녁 7시에 성탄 전야(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로 모여 찬양을 드린 후 교육1국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감사하는 순서를 갖는다. 또한 이날에는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들이 우리교회를 찾아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게 된다.

25일(수) 성탄절에는 새벽예배를 5시에 드리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감사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리게 된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성탄이 되도록 기도한다.

성탄절 축하 일정표

- 22일(주) 오후 5시 성탄축하 찬양예배 (주관: 가브리엘 찬양대)
- 24일(화) 오후 7시 성탄 전야행사 (주관: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 25일(수) 새벽 5시 성탄 새벽 예배
-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

찬양대 주중 연습한다

-새해부터 더 좋은 찬양 드리려고-

우리교회 주일 낮 예배를 담당하는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의 연습시간을 늘려 더 좋은 양질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새해부터 각 찬양대의 형편을 따라 주중 연습일자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18일 당회는 내년도 20개 교회 연합 메시아 연주회의 주관교회로서 우리교회가 찬양의 질을 우선 높이고 악기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는 6월 쯤부터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소원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시는 내년 1월부터 하되 대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늦어도 전반기에는 모든 찬양대가 실시토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지휘자, 반주자의 순환봉사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전임제도를 폐지하고 당회가 임명하는 찬양대에서 봉사하도록 했다.

29일 밤 특별제직회

-2002년 결산, 새해 예산심의 안건-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29일) 찬양예배 후 2002년 결산 및 새해 예산을 심의할 특별제직회가 소집된다. 이 일을 위해 제직들은 기도하고 제직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김복녀 장학금 신설

김복녀 권사(4교구)가 1억 원의 장학헌금을 바침으로 이를 기금으로 하여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금의 명칭은 '김복녀 장학금'으로 하고 극빈자 교우자녀 또는 농어촌 교역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장학회에서 관리하게 된다.

승용차 1대 기증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무명성도가 교회에 승용차 한 대를 기증했다. 이종윤 목사가 사용한 차가 9년이 넘어 자주 고장이 일어나게 되자 이를 안 성도가 현장전에는 차를 바꾸기를 원치않는 목사님의 의중을 알고 개인적으로 헌납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리문답반 신설

-새가족부 수료 후 1년 과정-



김재진목사

우리교회에 등록된 성도는 새가족부(8주간)를 거치게 되었다. 새가족부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성도는 1년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반에 입학하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와 성경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요리문답반 지도는 협동목사로 부임케 된 김재진 목사(좌측 사진)가 맡는다. 김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신대 신대원 청목과정을 이수한 김목사는 대구 계명대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연말연시 행사일정 발표되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교회는 아래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연말연시 교회 주요 행사표>

- 25일(수) ~ 27일(금) : 교역자수련회
- 29일(주) : 찬양예배 시 장로안식년 및 장로권사 · 은퇴식 찬양예배 후 특별 제직회
- 31일(화) : 오후 11:30 송구영신예배(본당)
- 1월 1일(수) : 오후 5시 당회원 신년하례회
- 5일(주) : 성찬식
- 2003 순결서약식(찬양예배 시)
- 6일(월) : 오전 7시 서울강남노회 신년하례회(801호)
- 6일(월)~11일(토) : 제직수련회 (본당)
- 13일(월) : 오후 1시 서울강남노회 신년수련회
- 18일(토) : 오후 5시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총회 (웨스트민스터 홀)



성탄 축하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기복음 2:8 - 14



이중윤 목사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예고에서 천사들은 아기의 강생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노래에는 하늘과 땅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다는 것은 높은 것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과 낮은 모든 것들과 대조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통명사입니다. 인간의 조상으로 오신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첫 열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 가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므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므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노래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아담 이후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갈등과 전쟁과 아픔과 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므로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는 자신의 고난을 의식하는 사람,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 곧 살림은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짓는 이들에게는 풍년이,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는 것이 살림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므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살림이 왔습니다. 진정한 살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화가 있고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평화는 생명과 함께 나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Peace with God)를 누리면 하나님의 평화(Peace of God)를 얻 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므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욕의 십자가가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더욱 큰 것입니다.

영광, 곧 헬라어로 독시는 믿는다, 생각한다(to believe, to think)는 말입니다. 누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분만을 의지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to appear 즉 자신의 죄 됨과 누추함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받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귀한 절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를 받고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성탄예배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인사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들리기를 바라면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뜨거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날씨는 뜨겁지만 성탄분위기는 맛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의미도 모르는 채 그저 백화점의 성탄장식이나 보면서 특별한 날임을 알 정도입니다. 태국의 12월은 아주 화려하고 들뜬 분위기가 되는데 그것은 12월 5일이 현 국왕의 생일이고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날은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사와 축하 장식들이 온 거리마다 넘쳐납니다.

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맞는 성탄절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 진정으로 이들의 축하를 받게 될런지요?

백화점의 쇼윈도우의 손님을 끄는 성탄장식들이 저희 기독교인들을 서글프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교회에서는 12월이 되면 각 교회마다 성탄축하 행사 날짜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타

교회 교인들까지 초청을 하여 축제 속에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초기 선교사들 덕분에 12월 내내 성탄절이고, 각 교회들을 서로 방문하여 성탄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됩니다. 진정 날마다가 성탄절이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들은 일년에 한번 만나서 자기 축속거리 축제를 하며 즐긴다는 것에 의미를 둘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신앙을 유지해야겠지요. 이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12월 7일, 특별한 성탄예배가 있었고 그에 앞서 성전봉헌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이 다녀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카렌족 후아이라이 마을의 성탄절 행사였습니다. 서울교회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단기선교팀이 뿌린 복음의 씨가 열매를 거두어 작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산골짜기 이 작은 교회가 굳건히 서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라 선교팀이 많은 고생을 하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주님의 실체를

있으면 비참할 뿐이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화려하진 않아도 은은하게, 멀리멀리 전해져서 이름 모를 어느 족속에게도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이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제자를 만들기 위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작업(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002년12월15일 치앙마이에서 이양동 선교사 드림.



▶ 작년 8월 1차 단기선교팀이 지원한 후아이라이마을 교회전경

새벽 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박두호 장로(가브리엘 찬양대장)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벽 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온 대원이 정성과 열정으로 새벽을 깨우며 1부 예배 찬양을 감당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성탄 절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분을 본받아 회개와 섬김과 용서가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새벽 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하였습니다. 온 대원들이 두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며 전심을 다했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와 함께 온 성도들께서도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은혜의 찬양을 올리시기 원합니다.

11년을 하루같이 가브리엘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시어 온 대원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자신은 평화의 도구로 드리는 2002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년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 뿐입니다(1)



지혜영 전도사(새가족부 지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헤아려 봅니다. 문득 어릴 때 하늘을 보며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을 보고 놀랐던 일이 문득 저의 마음을 스쳐갑니다.

개인적으로 2002년이라는 한 해를 허락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말기신 주님께서 친히 앞장 서서서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전 15:10)라고 바울 사도의 말로 저의 심정을 대신해 봅니다.

저에게 올해는 특별히 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한티 공원에서 70인 전도대를 만나 복음을 받은 문예련 성도님. 난생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의 영혼이 점점 주님을 향해 날개를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매주 성구를 암송하는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공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일에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며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서울교회의 교인이 된 남정열 성도입니다. 그는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으로 인해 인생의 패잔병이 되어 쓰러져 있을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인상을 한마디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물론이요 얼굴은 날로 빛이 났고 생기가 넘칩니다. 지금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옛날의 어두웠던 그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안에서 복음 까닭에 변하여 새사람 된 이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에 지하 3층에서부터 8층 만나홀까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새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송의숙 집사(11교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2003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차고도 넘쳤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에게 믿음 생활의 본이 되어 주신 아버님(박철훈 장로)께서 뜻하지 않은 병환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시어 가족들이 많이 놀랐지만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족 모두는 지금까지 한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큰 수술을 잘 견뎌내시며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절로 고개를 숙였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셨던 회복의 단계에서도 병원에서 이웃 병상의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또 한번 아버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

도합니다.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아버님의 회복을 도와주시는 서울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례자 연말 기획

2002년을 돌아보며

집중조명- 교육 3국(대학부, 청년부, 신혼 가정부), 4국(에바다부, 사랑부)

교육3국

청년부와 대학부, 신혼가정부로 구성된 교육3국은 서울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 교회의 힘과 활력이 되기 위해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교육 3국은 올 한 해, 각 부서별로 내실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대학·청년부

청년부와 대학부에서는, 주일은 예배와 봉사에 전념한다는 당회의 지침에 순종해 두 부서의 공동집회를 토요일에 열었다. 이를 위해 특별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목회 부흥에 성공한 타교회의 사례를 3개월간 연구한 뒤, 지난 4월부터 토요일 집회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청년부는 토요일 집회로 옮긴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대학부의 경우 토요일 집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실험적인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충실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기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성전 시대 이후 3부 예배는 청년예배로 정착돼 젊은이들만의 특색 있는 예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1부 가족예배와 더불어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에 제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2003년에는 청년예배의 부흥을 위해, 예배의 진행과 준비, 성가대, 안내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청년예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한 새해에는 교회가 준-전임 교역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년부와 대학부 회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또한 소그룹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섬기는 리더들이 성장하고 다시 새로운 소그룹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토요일 집회를 쇄신하고 조별 성경공부(G.B.S.)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새해 대책을 세우느라 청년부와 대학부의 신 임원들은 수시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있다.

신혼가정부

결혼 후 자칫 영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신혼생활 가운데, 가정과 부부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여러 가정들과 영·육간의 나눔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늑한 공동체로 정착해가고 있다. 두세 가정이 모이던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열 다섯 가정이나 등록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혼가정부 회원 모두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가정이 말씀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서 부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터득하며 한 주 한 주 귀한 말씀을 배우고 있다. 내년에도 새 가정부는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

교육4국

사랑부, 에바다부, 새가족부, 영어성경부로 구성된 교육

4국은 자칫 소수가 되기 쉬운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이다.

사랑부

사랑부는 올 한해 동안 매우 산만하기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을 감사의 첫 제목으로 꼽는다.

여기에 학생들을 한마음으로 감싸고 대해준 선생님들의 사랑이 값지고 보람된 한 해였다는 자체 평가다. 초창기 사랑부의 주 구성원이던 꼬마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최근 유치원 연령의 8명의 꼬마들이 새로이 등록을 하여 사랑부는 현재 학생 52명에 교사 34분의 양적 성장과 부흥을 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사랑부 10주년 행사를 가졌으며, 이 행사는 소망교회를 비롯한 타교회, 타부서와 연합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2003년도에는 강남구청의 장애인 부서를 위한 복지원 개설을 계기로, 이에 협력할 세무지침들을 준비중이다.

에바다부

에바다부는 올 한 해 동안도 꾸준히 수화교실을 운영해, 초·중급반 1차 수료자를 35명 배출했으며, 2차 수료자를 25명 정도 양육 중이다. 2003년에도 초급반부터 고급반 및 통역교실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월 1일부터 603호(초급반 1-2시)와 606호(고급·통역반 2-3시30분)에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수화교실에 등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사역 및 장기적인 교회 봉사에 뜻을 두고 계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영락농아인교회를 감당하시던 한국농아인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농아인 목회자인 임규현 목사의 부임으로, 기대가 크다. 지난 한 해 동안 수화교실 수료자를 중심으로 한 수화찬양 발표회 및 유·초등부 행사 찬조출연, 사랑부 10주년 행사 찬조출연 등에 함께 했던 수화찬양대가 2003년도에는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이에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집중 훈련하고 대외적으로 농아인 선교회 및 전국 농아인 대회에 참여할 계획도 갖고 있다. 2003년도 에바다부의 소망 중에는 10월 둘째 주 장애인의 날 특별 프로그램 및 농아인에게 팩스 및 보청기 보내기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한 통신수단이 없는 농아인들의 필수품인 팩스 및 보청기가 농아인 선교와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바다부는 이외에도 매주 주일 2부 예배와 저녁찬양예배, 수요일 예배에 전문 통역사 및 자체 양성된 수화교실 수료자를 통역사로 세워 분당 2층 우측 농아인석을 위한 예배통역을 주관해 오고 있다. 교육 4국의 영어성경부는 오늘(22일) 자체 평가회의를 거쳐 지난 한 해의 성과와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3,4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각 부서의 세세한 사역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온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나소정(편집부)

신·구약 성경 손으로 썼다

지금 서울 교회에는 말씀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번 흥해작전 때 이종운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권면하신 이후 많은 분들이 통독을 하여 순례자에 명단이 오르곤 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성경 읽는 재미에 빠져 2독, 3독을 거듭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13본의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신약성경 필사본을 만드셨고, 12 교구의 박명석 권사는 혼자 신구약 성경 모두를 직접 손으로 썼다고 한다.

박명석 권사에게 취재를 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가 바쁘게 들렸다. 전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 동안 노트에 성경을 쓰다가 올 1월 17일에 본격적으로 손으로 기록한 성경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12월 12일까지 1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여 신구약을 완성했다.

박 권사는 성경을 기록하며 받은 은혜가 많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끈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11년 전 미국에서 삭발을 하고 한국에 오신 이종운 목사님을 기억하며 한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형제이며 우리가 경배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박명석 권사는 앞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라고 했다.

온 성도가 성경통독을 하고 또 쓰는 자도 많아져 말씀이 더욱 풍성한 서울교회의 희망찬 2003년을 기대해 본다.

허수(편집부)



동정

- 우리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25 오후(수)~27(금)까지 강원도 속초 한화 콘도에서 열린다. 매년 연말에 일년을 돌아보고 새해 설계를 위한 기도와 세미나로 짜여진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기간동안 황선철 전도목사가 교회를 지킨다.
- 독남: 12월 18일, 12교구 감삼웅 성도 이정희 성도가 가정 독녀: 12월 18일, 12교구 이민호 집사 김희 성도가 가정
- 이사: 7교구 배영애 권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 마을아파트 202-503 (031)967-9367
- 14교구 백준기, 김용남 집사 동충하초 80박스 노인들께 헌납
- 급우의 식사: 정두균 집사·이영희권사기정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2. 연말연시를 보람있고 뜻있게 지낼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분열된 국론이 통일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